

## 이주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과제책임자** ... 김 이 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e-mail: yskim@kwdimail.re.kr

### 요 약

최근 중도입국 자녀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이들은 새로운 교육체제안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육적 공백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나 여성부의 정책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상자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적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또한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대부분이 후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학업연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1. 배경 및 문제점

- 이주는 이주민 개인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이들의 연쇄 이주(chain migration)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음. 이주민 부모를 따라 그 자녀

가 이주하는 것은 연쇄이주의 신호탄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이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인 자녀, 귀화자의 외국인 자녀를 제외한 이주민 자녀들은 국적 취득은 물론이고 합법적 입국조차 제한되어 있으며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음

- 최근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다가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소위 ‘중도입국’자녀 또는 청소년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관련 통계 체계가 미비하여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귀화 신청자를 중심으로

#### □ 귀화신청 청소년의 특성

- 2010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 5,726명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걸친 후기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중국 출신이 90% 이상임. 75.6%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즉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 출신 부모가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후 국적 취득 후 중국에서 낳고 자란 10대 후반의 중국국적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음

□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과 교육적 공백

- 이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중간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가족원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완전히 새로운 교육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가족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로 부모와의 이별과 방치를 경험하였음.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가족환경이 완전히 변화하며 낯선 구성원들과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함
- 중도입국 청소년 대부분이 중등, 고등학교의 연령대라는 점에서 학업을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음. 또한 귀화 전까지 외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편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교육적 공백기를 겪게 되기도 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연령대에 따라 학교 적응 속도가 다르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교과목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학업 이외에도 교우들 간에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인종차별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학업 수준에 따라 본래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어 상처를 받기도 함. 또한 한국의 지극히 경쟁적인 교육문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이들이 한국의 교육제도에 정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59.6%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아짐. 상급학교에 갈수록 학업이 더욱 어려움.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에서 입학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학업 중단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가장 높음. 결국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교육 등에서 소외되어 저임금 단순노동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2-2.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

### □ 정책 현황

- 중앙부처: 중도입국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으로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레인보우 스쿨’ 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을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들의 초기 적응,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등 7개 교육청에서 중도입국 자녀에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과제

- 현재의 지원 수준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일부 대도시 이외에는 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보기 어려움
- 외국 국적자의 학교 진입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학교 내의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학년 고려 등 대상자의 성격을 세밀하게 고려하기 어려우며,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나 담당자 역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함
- 독일, 호주 등과 같이 이주 청소년의 증가를 앞서 경험한 나라에서도 학업 연계와 취업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함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도 입국청소년의 대다수가 후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취업지원은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이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분야를 개발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 자체를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3. 정책제언

#### 제안1) 외국국적 자녀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체계 유연화

- 외국국적 자녀의 편·입학 허용을 각급 학교 학교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전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장은 편·입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개정
- 국적 취득 후 대학입시 외국인 특례 불인정 문제 해결
- 주요 상대국가와의 학력 인정-연계체계 구축

#### 제안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적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초기적응 프로그램, 특별학급 대폭 확대
- 입국연령대별, 한국어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

#### 제안3)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보완·취업연계 체계 마련

- 일반학교로의 통합 가능성이 낮은 후기 청소년기 입국 이주민 자녀를 위해 별도의 보완적 교육체계 마련
- 이들의 취업을 염두에 둔 진로 설계, 교육 훈련 기회 제공
-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 개발

#### 제안4)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 준수를 위해 미등록 체류상태에 있는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전향적 조치 강구
  - 초등교육법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이주민 자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들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
  - 교육행정상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대안 마련 등

#### 4. 기대효과

-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한 정책 수요 구체화
-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 증진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법무부, 고용노동부